

C프로그래밍2 2분반 컴퓨터공학부 2020136129 최수연

실습날 아침에 실습예제를 확인하고 난 뒤, 수업하기 전까지 열심히 문제를 살펴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다. 그래도 수업시간 끝나기 전에 조교님께서 친절하게 문제에 대한 풀이를 설명해주셔서 감사했다. 사실 적분 문제와 최대공약수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풀렸지만, 오일러 상수 문제부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다. 오일러 상수 문제 때문에 확률 문제에는 손을 대지도 못했다. 먼저 적분 문제는 직사각형 방법으로 선택하였는데, 나는 오차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3에서 3 범위를 0.00000001을 곱해서 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값을 내보니 18.000000이 나왔다.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는 오히려 적분 문제보다 쉬웠던 것 같은데, 두 값을 입력하면 둘 중 큰 값을 i에 대입하고, 그 i값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두 수로 나누어 두 값의 나머지가 모두 동일하게 0으로 떨어지는 값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오일러 상수 문제부터는 풀지 못했지만, 그래도 옆에서 같이 수업 듣는 학생이 열심히 조교님께 질문하는 것을 엿들으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다. 버퍼를 사용해서 9개의 값을 추출해보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나는 아스키 코드를 이용하여 -48하여 9개 값을 추출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도 다음 부분인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부분의 코드는 어느정도 구현해냈던 것 같아서 기뻐다. 마지막 노드에 관한 문제는 비록 풀지는 못했지만, 조교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어느정도 이해는 갔다. 실습 끝나고 코드를 올려주신 덕분에 집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어 좋았다. 중간고사가 끝나면 이 문제들을 다시 한 번 풀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